

광양만권 산업위기 선제 대응을 위한 공동건의

- 광양·순천상공회의소 -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발전을 선도해 오고 있는 철강, 이차전지 산업이 최근 심각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으로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가 산업의 초석이자 산업의 쌀인 ‘철강산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의 기술력 강화와 저가 공세, 엔저로 인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고율의 관세정책 등으로 그 위기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미래성장동력인 ‘이차전지 산업’은 중국 대비 원가 경쟁력 약화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로 전기차 및 이차전지 수요가 둔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국내 이차전지 산업 육성의 최적지이자 이차전지 폴밸류체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광양만권에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철회되거나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에, 광양·순천상공회의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1. 벼랑 끝에 몰린 철강, 이차전지 산업을 보호하고 경영 위기의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양시, 순천시를 ‘산업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인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 둔화와 경쟁력 하락을 극복하고 국가 이차전지 폴밸류체인 완성을 위해 광양만권을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소재이자 국가·경제 안보와 연관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철강분야를 국가첨단전략 산업 기술로 명시하는 법안 개정’ 을 건의드립니다.
- 一. 철강, 이차전지 산업은 제조원가에 전기료의 비중이 매우 높아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인 ‘철강, 이차전지 등 산업별 전용 요금제 도입’ 을 통한 전기료 인하 또는 보조금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철강, 이차전지 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산업의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회복불능 상태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의 하락과 지역경제 붕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광양·순천 상공회의소는 절체절명의 어려움에 직면한 철강, 이차전지 산업을 지켜내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조속한 선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5년 3월 6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우 광 일



순천상공회의소 회장
이 흥 우

